

SK에너지, 물류 합작기업 설립

컨테이너·벌크 전문 내트릭프렌즈 ... 현대상선·현대로지엠과 함께

SK에너지가 현대상선, 현대로지엠과 함께 물류 합작기업을 설립한다.

SK에너지 및 현대상선, 현대로지엠은 물류기업인 내트릭프렌즈 설립을 위한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11월17일 발표했다.

내트릭프렌즈는 컨테이너·벌크 화물의 운송가맹·주선, 상용차 부문 물류공급망관리(SCM) 구축 사업 등에 뛰어들 예정이다.

3사는 그동안 쌓아온 방대한 화물정보망을 활용해 비합리적인 다단계 화물운송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화물과 운송용 자동차를 실시간으로 연결해 공차운행 비율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상선은 통합물류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영업력을 강화하며, SK에너지는 현대상선, 현대로지엠의 육·해상 물류 노하우와 방대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해 기존 화물정보망 제공 사업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11/17>